

#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교육비 경감

유암초등학교(교장 송종길)는 지난 26일 오후2시부터 2005학년도 돌아오는 농촌학교 모델개발 운영 정책연구학교 2/3년차 운영보고를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유암초등학교는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실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이날 보고회는 특기·적성교육활동 및 전시물 참관과 특기·적성교육활동발표회, 개회식, 운영보고, 질의·응답, 도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정책연구 도 지정학교로 지난 2004년3월1일부터 2007년2월28일까지 3년간 포천시가 2억4천784만원, 경기도교육청이 5억7천968만원 등 모두 8억2천752만 원을 지원받아 교육기자재 확충에 8천661만원, 교육활동 지원 1천902만원, 특기·적성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 1억6천406만3천원, 환경개선 및 기타 교육활동지원비 4억9천998만6천원, 통학버스 임대 3천570

## 유암초, '돌아오는 농촌학교 모델' 중간보고



유암초등학교는 지난 26일 2005학년도 돌아오는 농촌학교 모델개발 운영정책연구학교 2/3년차 운영보고를 개최했다(사진은 특기적성 교육활동 발표회중 영어연극의 한장면).

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6학년 125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유암초등학교는 중국어, 영어, 컴퓨터, 태권도, 미술, 배드민턴, 풍물, 연극, 모험자동차 등 9개 과목의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들고 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운영으로 가정의 사교육비를 평균 100만원 정도 감소시켰고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학생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의 구축으로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학습부진아를 100%구제했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고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복지증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이바지했다.

그러나 외국인 강사의 강좌수가 적어 외국인 교육효과가 미흡하고 학생들의 재능을 살리는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기·적성 과목중 예체능 부서는 강사료가 고액으로 학교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특기·적성 부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 강사비, 유능한 강사진 확보 등에 수반되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경기영어마을 '주말초등반' 시범운영

## 내년3월 파주캠프에서 전국민대상 본격 운영 예정

내년부터 경기영어마을에서 주말가족반외에 주말초등반이 신규 운영된다.

내년 3월 개원하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서 운영될 주말초등반은 현재 안산캠프의 전국민 대상의 주말가족반과 같이 전국의 4학년부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박2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앞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에서 주말초등반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의 참가 대상자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의 재학생 총150명이다. 참가자 모집은 11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경기영어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참가자 선정은 접수자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입소에 따른 참가비는 일체 없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10명 단위로 반을 구성, 원어민을 비롯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 5박6일반 수업 장면.

한 전문영어강사가 배정되어 언어수업(Language Class)과 콘텐츠 수업(Content Class)을 포함하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대표영어마을이 될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정규 교육과정을 미리 알당겨 체험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어로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경기영어마을은 이번 안산캠프에서의 주말초등반 시범운영을 통하여 교육내용을 수정 보완해 내년부터 운영되는 파주캠프 주말초등반에 참여하는 어린학생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효과적인 내용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서지울떡 앞개울은 경사가 완만하여 썰매타기에 좋은 얼음판입니다.

썰매를 타려면 우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1월 초가 되면 아이들은 썰매를 만들거나 눈썰매, 꼬챙이를 만들기 위하여 마땅한 재료를 구해 놓아야 합니다.

새마을 사업과 아울러 산림녹화 사업이 병행되던 터이라 정부에서는 민등산에 아카시아나 오리나무를 많이 심어 우선 산이 푸르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나무만으로는 할벗은 민등산을 가릴 수 없었으므로 풀씨를 뿌려 홍수를 방제하고 산을 푸르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정부의 소유인 산에 해당하는 일일 뿐 우리 마을은 수백 년을 이어 내려온 씨족 마을인지라 산과 들의 소유자가 대개 동네 원주민의 소유입니다. 그런 토지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산에 각기 낙엽송과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들은 나무를 심은 지 이제 10여년 쯤 막 지나는 나무들을 주로 꼬챙이 감으로 썼습니다.

꼬챙이 감은 나무의 가장 꼭대기 수마리의 끝은 부분이 필요하였고 잣나무와 소나무의 골개 뺨은 수마리는 우리들의 주된 표적입니다. 그 나무들은 마치 우리들의 썰매 타는 꼬챙이 감으로 심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나 산 주인에게 들기면 경을 치기 다반사입니다. 썰매는 보통 날뼉지에 각목을 잘라 평행으로 대고 그 위에 철사를 잘라 외줄로 매어 만듭니다. 그러나 철사로 만든 썰매는 앞으로 잘 나가지 않거나 정지할 때에도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자

## 아빠 어렸을 적에 (43)

### 겨울놀이

전거의 체인이 벗겨지듯 철사가 벗겨지듯 쉬웠으므로 그다지 인기 있는 썰매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썰매는 남들이 타다 버린 스케이트 날을 박아 만든 썰매입니다. 스케이트는 부자집이나 동네에서 한두 짝쯤 있었을 뿐 우리들이 꿈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고가의 제품이었으므로 대부분 농사꾼의 자신들인 우리들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행여 험 스케이트라도 한 개 구입하는 날이면 우리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였고 그 스케이트는 정렬한 최후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합니다.

스케이트 신발이 낡아서 신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스케이트 날을 썰매에 박아 사용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스케이트 날은 썰매 만들고, 가죽 신발은 학교에 신고 다닙니다. 스케이트 신발은 고무신만 신고 다니던 우리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메이커 신발 같은 존재입니다. 스케이트 신발은 발목이 높고 묶는 끈이 길기 때문에 마치 천구덕 선수나 장영철 선수 같은 레슬링 선수들이 신는 레슬링 신발처럼 보입니다.

내 썰매는 MI 탄약통의 뚜껑입니다. 탄약통 뚜껑은 철로 되어 있어 고장이 잘 나지 않는 반영구

적인 썰매인데다 손잡이가 있어 꼬챙이를 꿰어 어깨에 메고 다니기가 아주 편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군 철조망을 묶는데 사용하였던 철 테두리를 잘라 썰매의 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외발썰매는 돌이 많은 좁은 얼음판에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타기에 좋습니다.

우리들은 인삼밭의 지붕을 만들기 위해 사다 놓은 굵은 대나무를 훑쳐다 쪼개어 스키를 만들어 탑니다. 대나무 스키는 구부린 스키 위에 신발을 끈으로 묶어 눈 위에서 타고 다니면 제법 편한 이동 수단입니다.

형제들이 많은 집일수록 동생들을 태워주며 돌보기 위해 눈썰매가 필요합니다.

눈썰매는 주로 계곡에 많이 자생하는 버드나무의 밑동을 잘라 만듭니다. 버드나무는 물이 많이 먹어 잘 닳지도 않거나 아래 부분이 앞으로 잘 나아가도록 구부러져 있었기에 우리들이 선호하는 눈썰매 감이랍니다.

아이들은 골잘 아이스하키를 즐깁니다. 저마다 아이스하키 스틱을 만들고 펴도 나무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신발이 변변치 못하였던 우리들에게는 아이스하키는 금방 땀이 나게 하는 운동량 이 많은 놀이 중 하나입니다.

얼음판이나 눈 위에서만 아이들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 김순진의 연재 수필



###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job51  
011-9123-4422

마을 앞에 있는 아주 작은 동산은 아이들이 연날리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동산 위에 올라 자기 집을 바라보며 연을 날리는 것은 아주 스릴 있는 놀이지요.

연을 만드는 종이로는 주로 황호지가 사용되었지만 어디에서 얇은 모조지 달력이라도 한 장 얻으면 그것은 연 만들 종이로 아주 좋습니다. 연의 골격을 지탱하는 연살은 주로 비닐우산의 우산살 대나무를 쪼개어 만듭니다.

아이들은 보통 가오리연을 잘 만들어 날립니다. 가오리연은 사각의 종이를 마름모꼴로 놓고 아래 부분이 앞으로 잘 나아가도록 구부러져 있었기에 우리들이 선호하는 연살은 주로 비닐우산의 우산살 대나무를 쪼개어 만듭니다.

아이들이 연날리기를 할 때에 정월 대보름까지 뿐이랍니다. 정월 대보름날은 연에 소원을 담아 날려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계속)

## 박애정신 자기개척 의지 다짐

### 경북대학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경북대학(학장 황병기) 간호과(학과장 이애경)는 지난 19일 교내 우당홀에서 나이팅게일의 박애정신과 자기개척 의지를 다짐하는 '경북대학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선서식에 참여한 199명의 경북대학 간호과 1학년 학생들은 이날 일생을 의롭게 살며 간호직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과 환자들의 인성을 위해 헌신할 것을 서약했다.

박용국 포천시장은 선서식 축사를 통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건강을 증진시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본적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한 간호학을 구현하는 주체로서



경북대학 간호과는 지난 19일 교내 우당홀에서 나이팅게일의 박애정신과 자기개척 의지를 다짐하는 경북대학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간호이론 습득과 실무기술 연마에 더욱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장

### 제3회 포천청소년연극제 4개학교 참가

제3회 포천청소년연극제가 지난 26일 오후2시부터 대진대학교 예술관 소극장에서 개최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한국연극협회 포천지부(지부장 이희용)가 주최하고 포천시가 후원해 마련한 이번 연극제에는 경북중학교와 동남중학교 광동고등학교와 동남고등학교 등 4개학교 연극팀이 참가했다.

경북중학교(교장 정일영) 작품은 '우린 할 수 있어' (지도교사 안영숙)로 선생님께 반항도 하고 학교 생활에 지치기도 하는 등 있는 그대로 중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내용

이다.

동남중학교(교장 최재선) 작품은 '토끼의 우정' (지도교사 김종욱)으로 토끼와 심청이 나누는 우정처럼 청소년들의 가슴에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광동고등학교(교장 송삼철) 작품은 '가시고기' (지도교사 정홍권)로 가족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동남고등학교(교장 조재행) 작품은 '여기 감방 맞아?' (지도교사 배서진)로 교실을 감옥으로 투사시켜 연극으로 만든 내용이다.

이희용 지부장은 이번 연극제를



제3회 포천청소년연극제가 지난 26일 오후2시부터 대진대학교 예술관 소극장에서 개최됐다(사진은 동남고등학교 출품작인 '여기 감방 맞아?' 에에 참가한 동남고 학생들).

통해 "배우로, 관객으로, 스태프로 참가한 학생들이 먼 훗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사회라는 큰 세상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代表 文宰吉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칼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칼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췌·췌국수

■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 전화 : 031-535-5773 ■ 팩스 : 031-534-13